

내가 본 북한

한겨레신문, 91.5.7~10, 박영숙 의원(IPU 한국대표단 고문)

자원관리 투박해도 효율적

평양에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렸던 국제의회연맹 85차 총회에 참석했던 남한대표단 25명 중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은 나 혼자였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수질오염사건 등 환경·여성문제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44년만에 고향땅 평양을 밟아보고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거나 안부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외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마음과 혈육의 뿌리를 찾으러 나설 때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억눌려져 있던 정서는 한꺼번에 분출되는 모양이다. 27일 판문점의 평화의 집에서 “고향에 가게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나의 가슴은 갑자기 두근거리고 말은 떨려 나왔다.

개성에서 기차편으로 도착해 주암산초대소에 짐을 풀고 둘러본 평양은 너무 변해 있었다. 서울도 엄청나게 바뀌었지만 평양은 더 달라져 있었다.

어린 시절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유적은 대동문, 보통문, 연광정 정도였다. 감자밭이었던 양각도와 늘어진 능수버들이 볼 만했던 능라도에는 대규

모 양각경기장, 5·1경기장 등이 들어서 옛날의 목가적 풍경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평양은 6·25 때 유엔군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돼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완전히 새 모습으로 복구된 도시라는 것이다.

가물가물 떠오르는 평양의 옛거리를 더듬어 나가려는 나의 갈증을 평양시민들이 연령의 노소에 관계없이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이유를 평양에서 며칠 밤을 지낸 뒤에야 알 수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의 평양에는 토박이가 시민의 20%도 안된다. 9일 동안 머물면서 만난 평양토박이는 환경부서의 담당관과 과학연구소의 부원장 등 단 두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토박이가 적은 이유는 이른바 ‘복잡계층’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6·25 당시 공습을 피해 지방으로 나갔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평양시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건축물은 모두 규모가 엄청나 보는 사람들을 압도한다. 그러나 세밀히 살펴보면 건축자재의 질은 다소 떨어지는 것 같고 조형미도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는 않았다.

지하철은 소련식을 모델로 건설돼 지하 130m에 설치됐는데도 환기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전혀 감감하지 않았다.



‘지하궁전’이라 불리는 지하철 평양역의 승강장

북한에서 임수경 씨에 대한 열기는 아직도 대단했다. 내가 받은 인상으로
는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의 첫 부인으로 죽은 김정숙에 이어 임씨가 네번째
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예술가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는 창작사를 방문했
을 때 사방 40m의 제1 전시실의 벽은 온통 임수경 씨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
장식돼 있었고 한가운데는 옥돌로 된 임씨의 두상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평양거리에는 옥돌로 된 임씨 두상과 똑같은 크기의 석고상 모제품이 팔리
고 있었다.

북한에 머무는 동안 모든 행사는 사전에 ‘조직’돼 있어 평양시민들의 생
활·작업환경 등을 안내원 없이 살펴볼 기회는 거의 갖지 못했다. 호텔에서
다른 나라의 대표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조세형·김광
일 의원과 함께 잠깐 시가지를 둘러 보겠다고 말하고 평양의 가장 변화가인
천리마거리로 나섰을 때도 임씨의 열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머문 주암산초대소는 거북할 정도로 식사대접을 해주었다. 음식은
산해진미라 할 만했고 같은 음식이라도 같은 형태로 나오는 법이 없었다. 그
러나 초대소 안의 풍요 속에서 북한이 뭔가를 과시하고 싶어서 지나치게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북한을 8박 9일간의 짧은 기간에 살펴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들이 투박하기는 하지만 가진 자원을 그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관
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인류의 자원이 기본적으로 제한돼 있고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오늘의 상황에서 앞으로 인류의 살 길이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데 있다면 북한쪽은 그들 나름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생활을 떳떳하게 보여주
지 못하고 남쪽을 의식해 과시 또는 연출하려 하는 태도였다. 안내원의 ‘조
직’으로 어디를 가건 자연스럽게 못한 구석이 항상 눈에 띄었다.

남과 북이 서로를 떳떳이 보여 주면서 솔직한 대화를 갖지 않는 한 남북관
계의 획기적 진전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거저 통일은 해야지요.” 첫째 말문

북한의 통일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은 이번 평양방문에 앞서 이미 여러 차례 듣고 있었다.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통일여의의 진의였으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통일을 소망하게 하는가 하는 점이 었다.

평양으로 향하기 위해 관문점 북쪽지역의 통일각에서 개성으로 향하는 차창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구호가 바로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 였고 다음으로 눈에 비친 것이 ‘조국은 하나이다’였다. 기차에 동승했던 북한의 기자들이 “고향에 온 기분이 어떠냐?”고 묻더니 곧바로 질문한 것이 통일에 관한 것이었다.



‘거리’의 통일열기. ‘조선은 하나다!’라는 구호가 눈에 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대회장에서, 숙소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방문한 모든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남녀노소,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통일을 말하고 우리에게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그쳤고 “제발 통일을 앞당겨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으레 “그 어린 통일의 꽃 임수경이를 그렇게 구속할 수 있는가?”, “통일의

투사 문익환 목사를 비행장에서 구속할 수가 있느냐?” 등의 원망의 소리를 하는가 하면 때로는 “임수경이를 석방도 시키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는 등의 힐난도 우리에게 서슴지 않았다.

통일이 안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불상사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하는 죄책감을 각자 갖게 하기에 충분한 분위기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화도 나게 만들기에 족했다.

개성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눈 내 안내원의 “거저 통일은 해야지요.”라는 말로 시작된 첫번째 의사표시도 통일에 관한 것이었다. 나의 안내원은 51살로 평양에서 산다고 했으며 북한노동당의 우당의 하나인 사회민주당의 선전요원으로서 70년대의 남북회담 때 정희경 선생의 안내원으로 수고한 여성이었다.

그가 나에게 말해준 통일을 바라는 이유는 김일성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니까 그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해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 주석이 지난 40여년간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주었으나 통일만은 아직도 이루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허끝에 두었다 하는 말처럼 질문이 떨어지자 금방 튀어나왔고 어느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물어도 똑같은 대답이었다. 삶의 의미도 무의미도 오로지 김 주석의 의지와 결부해서 찾고 있는 북한인민들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답안이었다.

북한의 통일방안의 윤곽은 윤기복 통일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4월 28일 우리 대표단을 위해 베푼 만수대의사당 만찬회 석상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 우리들의 과제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통일방안 모색, 대화의 필요성 등이었다.

그는 통일방안 모색에서 우리 나라만의 분단상태를 우려하면서 말로만의 통일은 작은 결실도 얻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일의 실마리조차 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사업(그의 표현)을 같은 목표와 방향으로 지향하면서 통일방도를 우리끼리(미국의 간섭 배제 의미)모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통일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것은 연방제통일방안이라고 하면서 2개

의 정부와 2개의 제도로 하는 하나의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남북 양쪽의 체제를 상호 인정·존중하고, 지역정부에 더 많은 군사 그리고 외교권을 주고 중앙정부는 이들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비록 공식표명으로서 처음이라고는 하나 종전에 북한이 주장하던 고려연방제와는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일방적으로 표명한 북쪽의 통일방안에 대해 밝혀야 할 점이 많았으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논쟁은 유보됐다. 제85차 국제의회연맹 총회 개막식의 김 주석의 연설에서도 같은 방안이 표명돼 오찬이나 만찬회를 통한 국제의회연맹 각국 대표단들의 비공식적인 논평들이 오고 갔다.

그들의 의문점은 한 국가에 두 영수가 있을 수 있는가 등에 집중됐다. 그리고 남북 양쪽의 다른 체제와 이념에 의한 국민의 사고와 생활양식의 이질현상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들도 하고 있었다.

통일논의에서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양쪽이 내세우는 전제조건들이었다고 보인다. 통일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시작한 바 있는 남북국 회회담, 고위급회담 등 각종 대화의 장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남한쪽의 주장인 반면 북한쪽에서는 남쪽에서 팀스피리트훈련, 이종구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문제, 미군철수문제 등이 선결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대화재개 의사도 없다고 하는 등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국들이 염원하고 있다는 통일된 세상을 기대하기는 아직 요원하다는 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지만 피를 나눈 동족의 정을 곳곳에서 확인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그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으면서 작은 밑거름이나마 계속 내디더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특별히 그곳의 여성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더욱 그랬다. 특별히 북한의 경공업부문의 부총리인 김복신 여사와의 만남에서 그랬다.

그는 헤어지면서 자기는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민족, 여성, 어머니로서 이 나라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데에 자기의 몫을 찾아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남한의 여성과 어머니들에게 1995년도에는 꼭 우리의 소원인 민족의 통일을 함께 이루어내자는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다. 우리 민족

은 한민족이기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환경요원 양성 등 예방차원 철저

8박 9일의 평양체제를 통해서 얻은 성과 중 하나를 꼽는다면 북한의 환경보호 관계의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환경현황을 알아보는 한편,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공동조사문제와 임진강 수질오염 공동조사문제 등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환경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일이다.

정무원 환경보호국의 국장, 과학원 환경보호연구소의 실장, 과학원 생물분원의 부원장 등 환경관련 고위책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남북 환경공동대책위원회 구성문제나 남북한의 환경문제 현황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북한쪽의 환경관련 담당자들도 알게 되어 앞으로 양쪽 연락창구를 통해 우리들의 관심사를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됐다.

나의 일정관계로 세 번이나 약속을 변경했는데도 북쪽의 환경전문가들이 밤늦게 숙소인 초대소까지 찾아와 질문에 답해주고 18가지나 되는 자료요청에도 응해준 뜻밖의 호의는 정말 고마웠다. 건네준 자료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잊지 않고 정중한 방법으로 전달해 준 배려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환경현황을 살필 수 있는 기회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들의 활동반경에서 보고 느끼고 살피고 한 것뿐이어서 유감이다.

공업은 분산배치하며 도시와 격리시키는 것이 북한의 정책이라고 한다. 공업의 집중지역인 함경남북도에서 우리가 본 지역은 농업지대와 관광지역이어서 다락밭(계단식밭)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문제는 남한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람과 자동차가 적으며, 적게 쓰고, 적게 버리고, 공장도 적고 보면 공해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도로에 유통량이 적은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원료가 있는 곳에서 그곳의 인력으로 생산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했다. 그곳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신속한 소통 등으로 우리

대표단들은 피곤을 잊을 정도였다.

숙소에서 내려다보이는 대동강에는 준설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한 준설작업이라고 한다.

평양의 통일거리에는 올해말 준공예정으로 5만채의 주택공사가 한창이었다. 혹시 골재채취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팔당호의 골재채취로 인한 한강의 수질오염현상을 연상했으나 대동강 물에 손도 담가 보고 눈으로 맑은 물을 확인하는 순간 어느 쪽이 되었건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북한 당국에서는 대동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천 비날론공장의 폐수를 서해안으로 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산으로 100mm관을 100km나 설치했다는데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서해안의 해양오염이 걱정되었다.(정화해서 배출한다고 설명이 있기는 했다.)

북한에서는 정부원의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 산하에 환경보호국이 있다. 환경보호국은 보건부·도시경영부·육해운부 등 관련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보호감독권한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고 있다. 환경관련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술홍보체계와 위원회, 각 부의 새 기술홍보체계를 통해 전달·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로는 환경보호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하여 사람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공동재산에 피해를 준 기관·기업소·단체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손해를 배상시킨다고 한다. 특히 기업활동이 독립채산제로 변경된 뒤에 환경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대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들의 수질오염 측정은 5일에 한번씩 하고 있었다. 측정항목은 32종으로 그중에는 아질산성 질소, 기름, 유기염소, 규산, 우라늄, 방사능 등 남쪽에는 없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철, 망간, 황산이온, 세제, 트리할로메탄(THM)등은 측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와 차이가 있었다.

골프장은 평양 어디엔가 한 곳이 있다고 했고 쓰레기문제는 별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가정이나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는 대부분 재활용하거나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비료로 재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쓰

레기처리시설이나 매립장 또는 하수처리시설 등을 직접 가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세제도 대부분 세탁공장에서 공동세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비교적 통제가 쉬워 보였다. 환경보호전문가의 양성은 김일성종합대학 등 50여개의 대학에서 100여개의 학부를 두고 계획적으로 환경보호분야의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아직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는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환경요원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점도 있었으나 예방차원의 대비가 더욱 중요한 게 환경문제라고 볼 때 앞을 내다보는 대책이라고 생각했다.

금강산 공동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중에 묘향산의 금광을 개발하고 싶어도 자연과 생태계 훼손 때문에 아직 보류하고 있다는 북쪽의 설명을 들으면서 남쪽 설악산의 무계획한 개발, 골프장건설 등에 대한 따끔한 충고가 아닌가 싶었다.

환경문제 시민단체가 있지도 않지만 아직 문제의식이 덜한 그곳에서 시민운동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했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남과 북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여성, 사회여건 바탕 전문인 활약 뚜렷

제85차 국제의회연맹(IPU)평양총회에 참가하면서 내가 걱정했던 부분은 총회의 세 가지 주제 중의 하나가 여성문제인데, 북한과 비교해서 여성문제에 관한 한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뒤져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들과의 입씨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다. 또한 듣던 바대로 북한의 여성이 실질적으로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을 성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었다.

나는 이러한 궁금증을 각계 각층의 북한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풀어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헛된 기대였다. 내가 만난 북한 여성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실제 삶의 현장을 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해방 뒤 북한사회가 사회주의식 정치개혁을 하면서 첫 과제로 설정한 것이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이다. 북한은 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이어서 9월 14일에 ‘동법령 시행세칙’을 반포함으로써 제도적인 보장책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그간 흐른 45년간의 세월은 그들 제도와 정책이 뿌리내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내가 살핀 오늘날 북한 여성의 당면과제는 성차별보다는 계층간의 차별에서 오는 요인이 더욱 크다고 생각됐다.

오늘날 북한 여성은 총취업인구의 48%를 점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는 21%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시·군의회에는 진출비율이 더욱 높다고 한다. 정무원의 부총리를 비롯해서 부장(장관급) 또는 부부장(차관급), 그밖에 각급 행정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은 얼마나 많은지 통계를 낼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곳의 고위급 여성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여성들은 이미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각기 맡은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어떤 분야에 진출한 여성들은 능력이 있는 한, 그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하며 기량을 닦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예를 외교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여연구 부의장에게서, 그리고 정무원의 김복신 부총리(경공업부문)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해방 당시 방직공이었던 김복신 부총리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김일성종합대학에 진학, 경제학부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한 뒤 60대 중반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마는 우리 정계의 여성현실과는 사뭇 달랐다. 지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젊은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했다. 문제는 과연 그들이 계속해서 여성정치인으로서 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평양 체류중 만난 김복신 부총리는 11명 북한 부총리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5월 1일이 메이데이 휴일이어서 개성에 있는 방직공장을 순찰중이었다는데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와의 대화 주제는 모성을 지닌 이 시대의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역사적 특수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전쟁은 남자들이 하지만 자식과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어머니와 아내는 가슴이 아프게 된다.”는 말로서 우리의 공동과제를 정리했다. 그는 남쪽 여성들이 제안해 온 여러 형태의 여성 교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체류중 북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사전에 다 알고 있어서인지, 알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양쪽 다인 지 모를 일이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러했다.

김 부총리에게 경공업부문의 책임자로서 북한 인민을 위한 오늘의 과제가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자기의 본래 의무가 인민을 고르게 잘 입고 먹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일본 수준(부총리의 표현)을 따라가려면 멀었다고 했다. 부족하지만 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취업·의료혜택·의식주의 기본적인 문제는 최저선은 유지한다고 했다.

‘고르게’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도농간의, 업종간의, 성분간의, 특별히 평양 시민과 타지 사람들의 차이가 있으며 이미 그 갈등이 노출되어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질문했다고 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점이 묻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였다.

내가 만난 또 한 사람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있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둘째 딸인 여연구 씨였다.

나는 이 두 북한의 여성지도자들에게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의지를 읽으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산가족 중에서도 고령이 된 이산부부의 상봉계획을 추진해 보자는 제의를 했다. 이 일은 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장의 생각이기도 했다.

46년간 차단된 현실에서 이질화된 우리 민족의 동질성회복 과업을 도그마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는 여성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다면 여성들은 이 일을 해내야 할 것이다.